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허인숙* · 이정현**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이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 정규수업 시간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일정한 날짜(격주 토요일 등)를 정하여 소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회참여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이 표집들의 시민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이 4가지 시민성(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변인들, 즉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들도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4가지 시민성 영역 모두에서 사회참여 활동 변인에 대한 유의도(p)는 유의성을 가지며, 회귀계수(B)의 값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여타 변인들보다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참여 활동, 시민성,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

* 아주대

** 아주대 교육대학원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시민성 결여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자신과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기주의적인 주장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해를 고려하지 못해 개인간, 계층간 또는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준법정신 등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인격함양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교육의 주요 목표(특히 사회과 교육의 목표)로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함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성의 함양을 지속적으로 강조 하고 있다. 한편 현대의 시민교육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하버마스(Habermas), 영(Young), 그리고 왈저(Walzer)는 현대의 시민교육은 합리성이나 덕목 등의 특정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다른 가치관, 관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태도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발적 참여 의식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시민성의 함양을 위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사회참여 동기를 자극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시민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를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이 한해에 7,000~8,000 건에 이를 정도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사회참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정부가 설립한 시민교육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여 개발한 이 프로그램들은 미래의 시민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러한 훈련은 학교의 수업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체험으로 확대되어졌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대다수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치고

있고, 그나마 약간의 학교가 특별수업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더라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소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만 사회수업 정규시간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시민성의 함양을 위해 사회참여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이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사회참여와 시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시민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던 변인들 즉,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등도 시민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뿐 아니라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이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미흡했던 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수업에서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시행 학교, 사회참여 활동을 일정한 날짜에(격주 토요일) 실시하는 소극적 시행 학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미시행 학교 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 표집들의 시민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이 4가지 시민성, 즉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의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 학생들의 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미시행 학교의 학생들보다 4 가지 시민성, 즉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나는가?

둘째,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들은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시민성의 개념과 요소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말은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성의 어원적 정의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달리말해 시민성은 곧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 즉,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비추어 요구되는 행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왕근, 1995).

현대사회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하버마스(Habermas), 영(Young), 그리고 왈쩌(Walzer)에 의하면 현대의 시민교육은 합리성이나 덕목 등의 특정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 자신과 다른 관념·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의 함양과 동시에 하나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다는 의식과 태도 또한 지닐 수 있는 시민교육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 시민교육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 관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을 넘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태도와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연대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식을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함양시켜야 할 시민성의 요소로 본다.

1) 관용 의식

문화적 다원주의자인 영(Young)에 따르면, 보편적 시민성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압박하기 때문에 집단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시민성을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집단의 시각과 관심이 그렇지 못한 집단의 시각과 관심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외된다는 것이다(은지용, 2002:29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들의 실질적 시민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담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사회는 동일성만을 강조하기에는 이미 다양하고 다원적인 구조로 변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회적 동일성만을 강조할 때에는 배타적인 전체주의로 변하기 쉽다(김용환, 1999). 이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사회가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은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식인 관용정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관용은 타자들과 얼마만큼 같은가 또는 공유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얼마만큼 그들과 다르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정치사회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사회가치를 놓고 경쟁하는 장의 성격을 지니며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문제는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갈등에 포함되는 참여자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태도를 소유할 것이 요청된다.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먼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상대주의에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인 바, 상대주의에 의하면 나의 이익이나 권리는 남의 이익이나 권리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참여자간의 타협과 협상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태도는 참여자 모두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폭력과 억지에 의하여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켜 대립과 반목을 일으키고 결국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이승중, 1997).

불행히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태도가 잘 배양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 엘리트들도 이러한 태도를 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일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정치사회의 전개에 따라 일어나는 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적 엘리트층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태도를 소유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3)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차원에서 본 시민성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하여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책임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에 기원을 둘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주의 전통은 루소(Rousseau), 헤겔(Hegel)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의 의무보다 강조하는 계약론적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한 극단적 공동체주의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완화된 공동체주의까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조영제·손동빈·조영달, 1997).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간 느끼는 귀속의식 또는 유대감을 말한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간의 갈등과,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협조와 공정한 경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상황 아래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는 합리적인 사회제도의 미비뿐만 아니라 사회진반에 걸친 개인주의의 팽배 내지는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의 결여에서도 그 원인을 찾게 된다. 제도의 문제를 별도로 할 때, 이렇듯 공동체의 이익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개인주의 내지는 사익 우선 풍조가 사회문제의 직·간접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서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이승중, 1997). 따라서 무

엇보다도 공동체 의식의 고양ی 필요하다고 본다.

4) 자발적 참여 의식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시민이라는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시민의 덕목은 참여의식이다. 시민은 공공 문제에 관한 토론, 의사결정, 행동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동등한 입장에서 설득하는 동반자이다. 나아가, 상호 대화나 집합적 행동과 같은 참여적 행동을 통해 개인적 이해관심을 공공문제로 변형시켜, 공공 관심과 사적인 관심이 균형을 이룸으로서 시민적 자질이 형성된다(은지용, 2002:28).

참여의식이란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여의식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치공동체의 공익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이승종, 1997). 이러한 공익 차원에서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소유한 시민은 정치엘리트를 감시하고 비평할 권리에 대한 확신, 공공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실제적 참여의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2. 효과적인 시민성 교육 방법: 사회참여 활동

지금까지 시민성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의 연구 결과 보고서(손봉호 외, 1999a)에 의하면 효과적인 시민성 교육방법으로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과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학생들과 시민들 간의 실제적 접촉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제를 매개로 한 상호접촉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성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관용정신,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양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 사회참여 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

그동안 우리는 사회참여의 개념을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나 집단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범위가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 신문과 방송에 독자 투고를 하거나, 행정 관서에 민원서 제출, 집단행동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익을 표출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서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시민운동을 벌이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교육부, 1996). 그러므로 ‘사회참여’란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 관련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이란 “학교 교육과 관련성을 가지며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 행위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다.

2) 사회참여 활동의 유형

사회참여의 일상화를 창출하는 교육 행위로서의 사회참여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정과 지역사회 등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유치원, 학교 또는 지방자치기관 등 공식적 사회화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방식이다(최현섭, 1999). 이 가운데 후자 즉, 체계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유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 봉사활동 지도편람(교육부, 2000)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면 <표 II-1> 과 같다. 이 밖에도 사회참여 활동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학교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II-1> 사회참여 활동의 유형 및 사례

사회참여 활동의 유형	사회참여 활동의 사례
일손 돕기 활동	빈곤 가정 탁아 봉사, 장애인, 노인 봉사 등
구조·구호 활동	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재해 복구, 지원 활동, 성금 활동 등
학교단체 활동	양성 평등반, NGO탐방반, 사회문제 참여반, 환경문제연구반, 대중매체 연구반 등
캠페인 활동	금연, 교통안전, 공정선거 등
지역사회 개발 활동	지역사회 인식, 환경미화, 공공구조물 관리, 지역문화 행사 등
자연·환경 보전 활동	오염 방지, 수거, 자연보호 등
전통 문화 보전 활동	문화유적지 관리, 전통문화 전승·확산 등
교류 협력 활동	지역간 교류 협력 봉사, 도·농간 교류 등
시민단체 활동	인권 운동 사랑방, 녹색연합, 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3.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

정치사회화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하는 전이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치대상과의 관계를 개발시켜 나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원태, 2001:79). 이 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치사회화와 정치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 친구집단, 학교의 역할 등이 정치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에 있어서 부모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들끼리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과 같이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발달했고, 동료집단의 경우 동료집단끼리 정치적 토의를 자주 하는 집단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고 하여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가족과 동료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투표참여, 직접참여, 학교의 자치 활동, 가정환경 변인, 성적, 성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박가나, 2001:30-31). 특히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생회 활동 등 특별활동의 전 영역을 종합하는 성격을 지닌 학교 활동은 참여 민주주의를 학교 교육 속에서 적용, 실천함으로써 민주적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한다.

사회참여와 시민성 형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가족, 친구집단, 그리고 학교의 활동 변인들이 시민성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 연구들의 최근의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원태(2001)는 고등학교의 사회체험 교육이 시민성(관용정신,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가정, 친구집단, 학교의 민주성, 언론과의 접촉 수준과 시민성의 형성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관용의식과 관련해서는 가정, 친구집단 그리고 언론매체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학교활동의 민주성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와 관련해서는 가정의 민주성 수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친구집단의 민주성 수준과 학교활동의 민주성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민주성 수준과 언론매체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친구집단의 민주성 수준과 학교활동의 민주성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참여의식과 관련해서는 학교활동의 민주성 수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가정의 민주성, 친구집단의 민주성 수준, 그리고 언론매체 접촉 수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천희완(1999)도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가정, 친구집단, 자발적 참여 단체, 언론매체 접촉, 사회성적과 민주적 정치태도와의 관계도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의 계층이 상층일수록 가정의 민주성이 높고, 친구수가 많을수록 친구집단이 민주성 수준이 높고, 단체 활동을 오래하는가 보다는 단체활동의 민주적인 성격이 민주성을 좌우하여 결국 민주적 정치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가정변인, 친구집단 변인, 학교활동 변인 그리고 언론매체 변인 등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정, 친구집단, 그리고 학교활동 변인이 시민성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재검토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사회참여와 시민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현섭(2000)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 체험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교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외에서 사회참여 체험 훈련을 실시할 때 집단 활동 프로그램, 친구관계 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사회참여 체험 훈련 프로그램들의 사용이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을 위한 사회참여 체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원태(2001)는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사회체험 교육이 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참여 체험을 할수록 학생의 시민성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은지용(2002)은 서울소재 5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의 일환으로서 ‘봉사활동 반성경험이 시민성(자율성, 공동체의식, 관용정신, 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봉사 활동 반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시민성이 높게 측정 되었다. 김영인(2002)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일환으로서 ‘정치참여의 시민교육 효과’ 즉, 정치참여에 의한 시민성 함양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비투표 정치참여성향이 시민교육효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공익추구 정치참여 동기, 숙의형 정치참여절차, 투표 정치참여성향 순으로 시민교육효과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회참여와 시민성과 관련된 기타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천희완(1999)은 민주적 정치태도에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수록 학생들의 민주적 정치태도를 더 많이 갖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박가나의 연구(2001)에서는 학생들의 학생회 임원 참여나 건의, 항의, 캠페인 등 직접참여가 투표 참여에 비해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남채봉의 연구(2002)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가 정치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치참여가 적극적인 집단에 속할수록 정치 효능감과 참여에 대한 시민적 의무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사회참여와 시민성 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의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사회참여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회참여 활동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설명하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이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의 효과를 파악하여, 학교교육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4년 5월 약 한 달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전체 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604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학교의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각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이 표집 집단은 사회수업 시간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남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 남학생 201명(적극적 시행학교), 일정한 날짜(격주 토요일 등)를 정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는 의왕시에 위치한 B고등학교 남학생 202명(소극적 시행학교), 사회참여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수원에 위치한 C고등학교 남학생 201명(미시행 학교)이다.

사회참여 활동 유형,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수용 정도,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해 연구대상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참여한 사회참여 활동 유형으로 학교 단체 활동 33.4%(202명), 일손 돕기 활동이 27.5%(166명), 지역 사회 개발 활동 18.9%(1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참여 활동유형으로 일손 돕기 활동이 27.5%(166명), 시민단체 활동 15.2%(92명) 과 전통문화 보존 활동 10.3%(62명), 자연 환경 보존 활동 14.7%(8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수용 정도는 비

교적 잘 수용하는 편이 전체 604명중 42.1%(254명), 매우 잘 수용한다고 30.1%(182명)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친구관계는 2~4명 정도가 54.0%(326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5~7명 정도가 18.7%(113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1) 측정도구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설문조사(survey)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앞에서 기술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1부인 독립변인에 대한 총 16문항과 2부인 종속변인에 대한 총 16문항으로 5점 척도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독립변인에 대한 설문은 가정변인(가정의 민주성 수준: 문항 1-2(가족들의 관용정신과 사회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 친구집단 변인(친구관계, 친구집단의 사회참여 정도: 문항 3-5(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수, 친구들의 관용정신과 사회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 학교활동 변인(학교활동(클럽, 학급, 학생활동)의 참여정도:문항 6-7(학교활동 시간과 학교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학습 정도)), 사회참여 활동 변인(사회참여 활동 여부, 사회참여 활동 종류 및 유형, 선택의 적절성(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형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활동의 만족도 :문항 8-16)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인에 대한 설문은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설문내용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2) 분석방법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소극적 시행, 미시행 학교의 학생들보다 시민성이 높게 나타나는가와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들은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 시행학교, 소극적 시행학교, 그리고 미시행 학교의 학생들

에 대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동 여부 이외의 가정, 친구집단, 학교활동 변인 등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Y_i = a + b_1 X_{1i} + b_2 X_{2i} + b_3 X_{3i} + b_4 X_{4i}$$

(Y= 시민성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X_1 =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 X_2 = 가정 변인, X_3 = 친구 집단 변인, X_4 = 학교활동 변인)

<표 III-1> 종속변인에 대한 설문내용

변인	영역	영역별 설문내용	내용 요소별 설문 내용	문항번호
종 속 변 인	시민성	관용 의식	·다른 의견 존중 정도 ·왕따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허용 정도 ·평등, 공정성에 대한 정도 ·자기주변의 관용의식 정도	1~4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허용 정도 ·대화와 타협의 존중 정도 ·개인주의적 성향 정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존중 정도	5~8
		공동체 의식	·협동심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기초 생활 질서 준수 정도 ·기식자에 대한 허용 정도	9~12
		자발적 참여 의식	·자발적 참여에 대한 허용 정도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 인식정도 ·참여에 대한 적극성 정도 ·선거 참여 의식 정도	13~16

IV. 연구 결과

1. 사회참여 활동에 따른 시민성 점수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시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제시되었듯이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교 시민성 평균 점수는 62.96점,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시민성 평균 점수는 58.56점, 사회참여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시민성 평균점수는 55.76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에 따른 시민성 점수

재학중인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정도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평균점수 합계
사회참여 활동 미시행 학교 (N=201)	평균	3.33	3.54	3.65	3.42	55.76점
	표준편차	1.28	1.15	1.04	1.20	
	평균점수	13.32	14.16	14.60	13.68	
사회참여 활동 소극적 시행 학교 (N=202)	평균	3.68	3.64	3.62	3.70	58.56점
	표준편차	1.22	1.10	1.09	1.17	
	평균점수	14.72	14.56	14.48	14.80	
사회참여 활동 적극적 시행 학교 (N=201)	평균	3.95	3.94	3.87	3.98	62.96점
	표준편차	1.21	1.12	1.07	1.18	
	평균점수	15.80	15.76	15.48	15.92	

2. 독립변인간 및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IV-2>에 제시되었듯이, 첫 번째로 친구의 수의 변인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변인들과 상관관계수(r)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 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즉 많을수록 가정의 민주성이 높고(r=.415), 부모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며(r=.355), 친구들의 사회참여 활동(r=.548), 학교활동 시간(r=.622), 학교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학습 정도(r=.644),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r=.472),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r=.342)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민주성과 높은 상관관계(r=.478)를 가진다. 이는 가정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친구의 수와 상관관계수(r)는 .472, 친구들의 사회참여활동 정도와의 상관관계수(r)는 .440, 학교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학습 정도와의 상관관계수(r)는 .3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r=.466)를 가진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학교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학습 정도와의 상관관계수(r)는 .448, 학교활동 시간과의 상관관계(r)는 .410, 친구들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와의 상관관계수(r)는 .370, 친구의 수와의 상관관계수(r)는 .3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정의 민주성	부모의 사회참여 활동	친구의 수	친구들의 사회참여 활동	학교 활동 시간	학교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학습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사회 참여 활동 시간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필요성
가정의 민주성	1.000	.260**	.415**	.451**	.259**	.263**	.219**	.092*	.478**	.276**
부모의 사회참여 활동	.000	1.000	.355**	.298**	.145**	.242**	.241**	.174**	.292**	.212**
친구의 수	.000	.000	1.000	.548**	.622**	.644**	.322**	.283**	.472**	.342**
친구들의 사회참여 활동	.000	.000	.000	1.000	.517**	.603**	.358**	.229**	.440**	.370**
학교 활동 시간	.000	.000	.000	.000	1.000	.675**	-.021	-.064	.288**	.410**
학교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학습	.000	.000	.000	.000	.000	1.000	.258**	.202**	.391**	.448**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000	.000	.000	.000	.607	.000	1.000	.678**	.196**	.097*
사회 참여 활동 시간	.023	.000	.000	.000	.119	.000	.000	1.000	.093*	.011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2	1.000	.466**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필요성 여부	.000	.000	.000	.000	.000	.000	.018	.782	.000	1.000

(** p<.01, * p<.05)

마지막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여부와 사회참여 활동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r)인 .67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 시간이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서 학교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시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IV-3>에 제시되었듯이 첫 번째로, 관용의식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관용의식은 가정변인($r=.327$), 친구집단변인($r=.396$), 학교활동변인($r=.190$),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r=.263$),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r=.491$)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정도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참여 활동이 학생들의 관용의식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와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가정변인($r=.458$), 친구집단변인($r=.433$), 학교활동변인($r=.273$),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r=.168$),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r=.675$)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에서는 가정과 친구집단 변인들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민주성, 부모의 사회참여 활동정도, 친구의 수, 친구의 민주성 등이 높을수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정도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사회참여 활동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는 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공동체 의식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은 가정변인($r=.331$), 친구집단변인($r=.276$), 학교활동변인($r=.261$),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r=.195$),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r=.457$)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변인, 사회참여 활동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는데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 외에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자발적 참여의식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자발적 참여의식은 가정변인($r=.363$), 친구집단변인($r=.349$), 학교활동변인($r=.257$),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r=.205$),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r=.535$)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 참여의식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마찬가지로 가정변인과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상관 계수 (r)	유의도	상관 계수 (r)	유의도	상관 계수 (r)	유의도	상관 계수 (r)	유의도
가정 변인	.327**	.000	.458**	.000	.331**	.000	.363**	.000
친구 집단 변인	.396**	.000	.433**	.000	.276**	.000	.349**	.000
학교 활동 변인	.190**	.000	.273**	.000	.261**	.000	.257**	.000
재학중인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정도	.263**	.000	.168**	.000	.195**	.000	.205**	.000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491**	.000	.675**	.000	.457**	.000	.535**	.000

(** p<.01, * p<.05)

3) 검증결과

본 연구문제인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소극적 또는 미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시민성이 높게 나타나는가와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들은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시민성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귀 계수	유의도	회귀 계수	유의도	회귀 계수	유의도	회귀 계수	유의도
가정 변인	.144	.001**	7.585E-0 2	.049	.121	.004**	.163	.001**
친구 집단 변인	.176	.003**	3.614E-0 2	.507	-9.609E-0 2	.030	.197	.000** *
학교 활동 변인	-1.120E-0 2	.782	.171	.000** *	.137	.000** *	8.929E-0 2	.010
학교의 사회 참여 활동 정도	.228	.000** *	.159	.003**	.168	.000***	.175	.001**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490	.000** *	.207	.000***	.331	.000***	.460	.000** *

(*** p< .001) ** p< .01, * p< .05)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적인 유의 정도로 보아 관용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가정변인(B=.144), 친구집단 변인(B=.176),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B=.228),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B=.490)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수업에서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시행 학교의 학생들이 관용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활동 변인, 즉 클럽, 학급, 학생활동의 참여정도는 관용의식의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학교활동 변인(B=.171),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B=.159),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B=.207)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수업에서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시행 학교의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정 변인과 친구집단 변인은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의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가정변인($B=.121$), 학교활동 변인($B=.137$),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B=.168$),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B=.331$)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수업에서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시행 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친구집단 변인은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가정변인($B=.163$), 친구집단 변인($B=.197$),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B=.175$),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B=.460$)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참여 활동 변인과 친구집단 변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시행 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활동 변인, 즉 클럽, 학급, 학생활동의 참여정도는 참여의식의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성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정, 친구집단, 학교활동들과 함께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회참여 활동의 적극적 시행, 소극적 시행, 미시행 학교 학생들의 시민성 정도를 점수화 해본 결과 적극적 시행 학교의 평균점수는 80점 만점에 62.96점, 소극적 시행 학교의 평균 점수는 58.56점, 미시행 학교의 평균점수는 55.76점으로 나타남으로서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시민성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들간 및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여부와 사회참여 활동시간과의 상관계수(r)는 .678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 시간이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서 학교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시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 던져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의 만족도와 시민성 영역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시민성의 4영역 모두 사회참여 활동의 만족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의 사회참여 활동 정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만족도 또한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학생이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성 형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만족도 또한 시민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시민성(관용 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정, 친구집단, 학교활동들과 함께 비교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시민성 영역 모두에서 사회참여 활동 변인에 대한 유의도(p)는 유의성을 가지며, 회귀계수(B)의 값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 변인이 여타 변인들보다 학생들의 시민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민성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이 청소년들의 시민성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정규수업 시간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고등학교, 일정한 날짜(격주 토요일 등)를 정하여 소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사회참여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이 표집들의 시민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 활동이 4가지 시민성(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 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뿐 아니라 가정·친구집단·학교활동 변인들도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사회참여 활동의 여부보다 사회참여 활동 후에 느끼는 만족감은 시민성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용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과 함께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사회참여 활동과 학교활동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것은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허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방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참여 활동과 학교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학교활동은 공동체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내에서 친구·교사와의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 내에서 서로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자발적 참여의식 함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발달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집단 변인도 자발적 참여의식 함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친구관계, 친구들의 참여의식 등이 자신의 참여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 친구집단과 함께하는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은 시민성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학교에서 사회참여 활동 교육은 관용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참여 활동이 교과 외적 활동이 아닌 교과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 외적 활동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대부분의 지금 상태로는 학생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불가능 하며, 높은 시민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에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의 탄력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규수업을 이용한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다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럼 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시민성도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수행평가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사회참여 활동과 같은 현장학습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들을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사회참여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참여 활동과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과 관련하여 좀 더 발전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만 표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민성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과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여 시민성에 대한 성별, 학년, 그리고 사회적 배경 변인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대현(2000). 현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교육연구 제31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2001).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민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교육부(1996).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00). 학생봉사활동 지도편람: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내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인(2002).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 교육연구 제3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김용환(1999).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남채봉(200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박가나(2001).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손봉호 외(1999a). 한국시민사회와 이에 적합한 시민윤리교육. 인문사회 분야 연구보고서, 교육부.
- 외(1999b)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 규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28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신세호 외(1990). 고등학교 민주주의 교육 욕구 조사. 연구보고 RR90-9, 한국교육개발원.
-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이승중(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도서출판 삼영.
- 이승중(1997). 한국 정치사회의 전개와 시민성의 과제. 조영달 편, 한국 시민 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 조영제·손동빈·조영달(1997). 사회공동체의 변화와 시민사회, 시민성. 조영달 편,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시민의식. 서울: 교육과학사.
- 조영제(1998).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서의 관용과 그 시민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천희완(1999).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천희완(2000). 수행평가 과정에서 실천한 사회참여 활동. 2000년 여름 직무연수 자료집-사회참여와 사회과 교육. 전국사회교사모임.
- 최현섭(1999). 사회참여 체험학습의 원리와 기본개요. 교사연수자료집.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 운동협의회.
- (2000).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참여 체험 훈련 프로그램개발 연구. 교육연구, 제10집.
- 허평길(1999). 서구 시민사회론의 변천과 사회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제29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Habermas, J. (1994).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teenbergen. B. V.(ed.1994).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 Sage Publications.
- Kymlicka, W. & Norman, W. (1995). Return of the citizenship: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R. Beiner(Ed.), *Theorizing citizenship* (pp. 283-315).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BSTRACT

The study on Adolescence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Citizenship Formation

Heo, In-Sook* · Lee, Jung-Hyun*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ether or not school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improve the four citizenship elements of adolescences -sense of tolerance, sense of community, democratic decision-making attitude, and voluntary participations-. For this study, three high school groups those execut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passive activities, and no activities were chosen. Based on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influences positively adolescences' citizenship formation.

Key Word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citizenship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2월 7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

* Aju University